
2018년 3/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18년 3/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 보고서

□ 조사 개요

○ 목 적 : 경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회원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대 상 : 경주지역 제조업체 50개사

○ 기 간 : 2018년 5월 28일 ~ 2018년 6월 8일 (휴일제외 9일간)

○ 조사 내용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18년도 3/4분기 전망치 및 2018년도 2/4분기 실적치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 조달여건)
2. 2018년 2/4분기와 2018년 3/4분기의 정책적 환경 비교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1. 분기별로 조사대상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2.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 수} - \text{악화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2018년 3/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 경주지역 주요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BSI '76'으로
.... 여전히 기준치 '100' 밑돌아

●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의 기대심리는 2분기와 비교해
2018년 2/4분기 전망치 '75' 대비 '1' 포인트 상승

I

경주지역 경기전망

- 경주상공회의소(회장 최순호)가 지역 주요 제조업체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2018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경주지역 기업의 BSI 전망치 『76』로 나타나 전분기인 2/4분기 전망치 『75』 대비 1포인트로 상승하며 최근 2013년 이래 BSI 기준치 100이하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미·중 간 보복관세로 시작된 무역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와 고착화된 대립적 노사관계가 수출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속에 경주지역 제조업체들도 계속된 내수침체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도 시행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지역 업체들의 경우 3/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 인한 완성차 판매량 감소가 생산성 악화로 이어지고는 있는 상황에 특히 지역 대표적인 제

조업인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의 경우 작년부터 수출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내수시장에선 수입차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 3/4분기 중 세부 항목별로는 매출액 부분에서 내수가 80, 수출이 76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업이익 부문중 내수가 70, 수출 영업이익 68로 나타나 생산 물량과 채산성 지표가 2/4분기와 마찬가지로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전망되어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대내외 여건들 중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은 절반이 넘는 64.2%가 고용환경 변화를 꼽았으며, 이어 환율변동(13.2%), 통상마찰과 기타가 각각 (7.5%), 금리인상 가능성(5.7%), 남북관계 변화(1.9%)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경기상황 속에 올 하반기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38%가 없음, 32%는 불확실하다고 응답해 고용전망 역시 어두웠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고용환경 변화가 가장 큰 영향주는 것으로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42.1%), 매출감소(31.6%)를 꼽았고, 이어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21.1%), 공정 자동화(5.3%)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해 56%는 매우 크게 부담, 38%는 어느 정도 부담이라고 답했으며, 6%는 별다른 부담 없음이라고 답해 94%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 상승에 대한 업체의 대응방안으로는 34.5%가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3.6%는 대응하지 못함, 기존 인력 감축 21.8% 순으로 나타났다.

- 이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4%가 변화 없다, 46%는 악화되었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61.3%가 경영환경 악화를 꼽았고, 까다로운 심사절차 29.0%, 금리 인상 가능성 9.7%로 들었다.
- 6.13 지방선거후 광역단체장과 지역 단체장 대폭 교체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는 만큼 변화된 고용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충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지원 대책 방안과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 판단된다.

그림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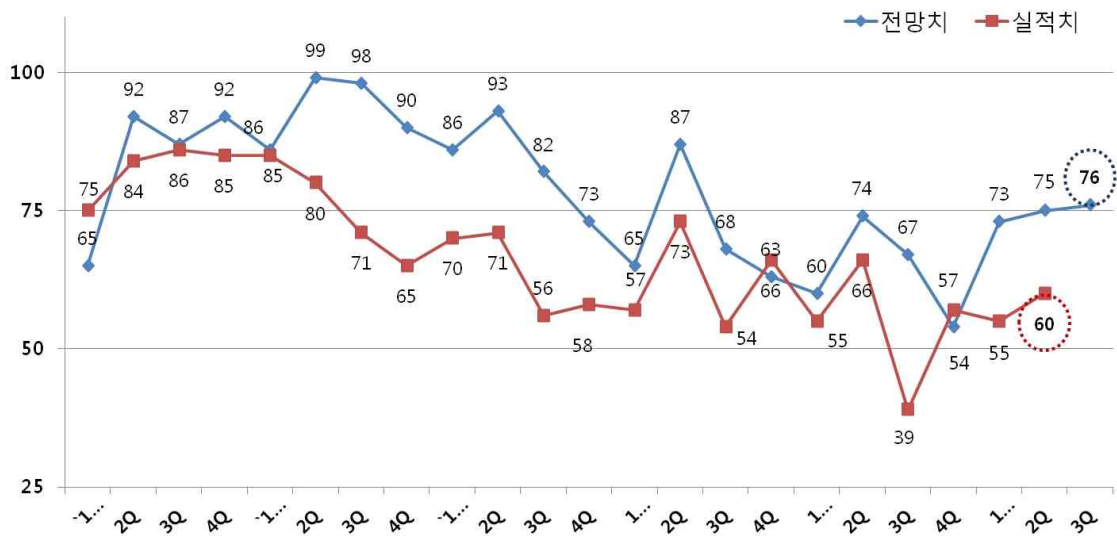


표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구분 BSI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전망치	82	73	65	87	68	63	60	74	67	54	73	75	76
실적치	56	58	57	73	54	66	55	66	39	57	55	60	

II

항목별 경기동향

- 2018년 2/4분기 실적 대비 2018년 3/4분기 전망을 비교하면, 전반적인 체감경기의 경우 (60→84), 내수 매출액 (60→80), 수출 매출액 (74→76), 내수 영업이익 (60→70), 수출 영업이익(46→68)으로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18년 1/4분기 실적 대비 '18년 2/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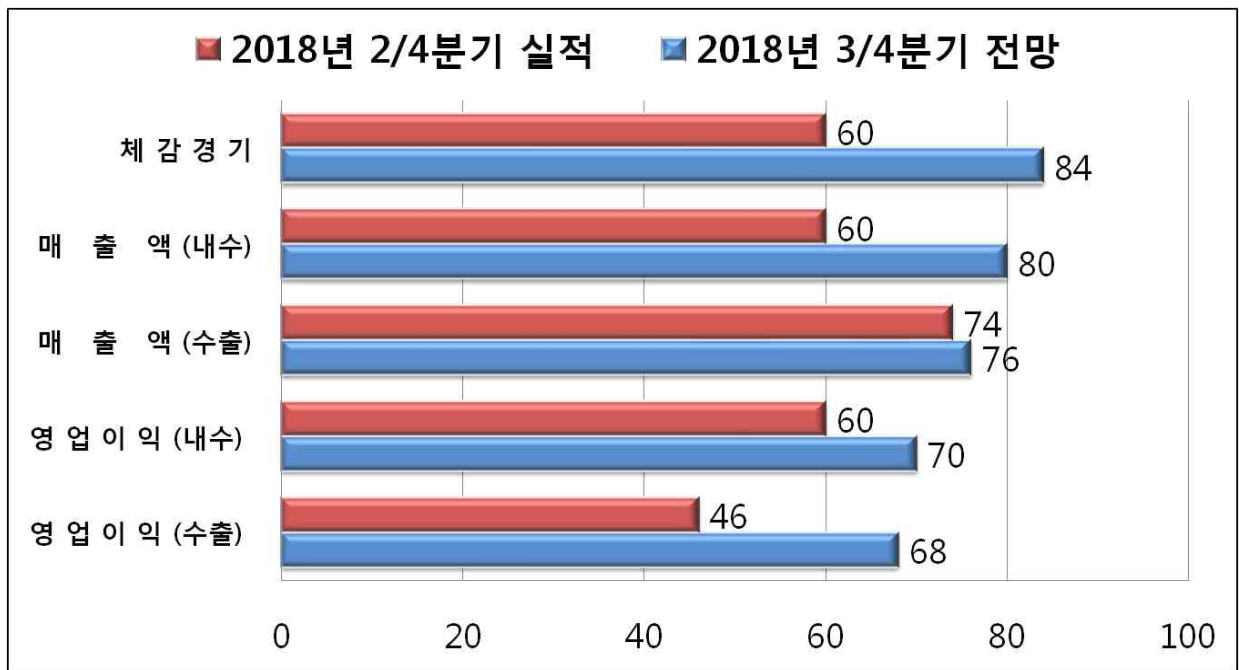


표 2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항 목		2016				2017								2018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체감경기		50	40	52	76	60	42	68	50	62	31	47	50	76	62	87	60	84	
매출액	내수	53	46	64	82	62	44	78	50	63	35	60	60	78	58	90	60	80	
	수출										55	62	62	74	60	69	74	76	
영업이익	내수	53	44	60							25	49	56	72	48	79	60	70	
	수출										45	47	54	66	58	71	46	68	
자금조달여건					70	94	54	66	62	57	46	58	60	70	42	54			
설비투자		94	100	87	102	84	80	84	103	87									

1 “다음 대내외 여건들 중 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 고용환경 변화 (64.2%), 환율변동 (13.2%), 통상마찰 (7.5%), 기타 (7.5%), 금리인상 가능성 (5.7%), 남북관계 변화 (1.9%)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선택>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고용환경 변화	34	64.2%
환율변동	7	13.2%
통상마찰	4	7.5%
기타	4	7.5%
금리인상 가능성	3	5.7%
남북관계 변화	1	1.9%
유가상승	-	-
6월 지방선거	-	-
합 계	53	100%

2 “2018년 하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 없음 (38%), 불확실 (32%), 있다 (30%)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없다	19	38%
불확실	16	32%
있다	15	30%
합 계	50	100%

3 “(채용계획이 ‘없다’ 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 (42.1%), 매출감소 (31.6%),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21.1%), 공정 자동화(5.3%)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	8	42.1%
매출감소	6	31.6%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4	21.1%
공정 자동화	1	5.3%
기타	—	—
합 계	19	100%

4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환경 변화가 귀사에 얼마나 부담을 주었습니까?”

- 매우 크게 부담 (56%), 어느 정도 부담(38%), 별다른 부담 없음 (6%)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매우 크게 부담	28	56%
어느 정도 부담	19	38%
별다른 부담 없음	3	6%
전혀 없음	—	—
합 계	50	100%

5 “최저임금제 상승에 대비하여 귀사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신규채용 축소 (34.5%), 대응하지 못함 (23.6%), 기존 인력 감축 (21.8%), 기타(14.5%), 해외이전 검토(3.6%), 사업 종료(1.8%)로 나타났다.

<중복선택>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신규채용 축소	19	34. 5%
대응하지 못함	13	23. 6%
기존 인력 감축	12	21. 8%
기타	8	14. 5%
해외이전 검토	2	3. 6%
사업 종료	1	1. 8%
합 계	55	100%

6 “ 현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 불변 (54%), 악화 (46%)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불변	27	54%
악화	23	46%
개선	-	-
합 계	50	100%

7 “(‘악화’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영환경 악화 (61.3%), 까다로운 심사절차 (29%), 금리 인상 가능성 (9.7%) 순으로 나타났다.

< > < : 개, % >

	응답 업체수	백분율
경영환경 악화	19	61. 3%
까다로운 심사절차	9	29%
금리 인상 가능성	3	9. 7%
기타	—	—
합 계	31	100%